# 사람을 향한 기술!
# 행복한 에너지기술 **한국전력기술**

모든 것은 하나의 점에서 시작됐습니다. 그 하나의 점은, 우리의 의지이자 신념이고 인류를 향한 사명이었습니다.
그 점이 모여 선을 만들고, 선들이 모여 면을 그리고, 면을 채운 인고의 시간이 모여 우리만의 기술이 만들어졌습니다.
한국전력기술은 지금까지의 도전이 늘 새로운 미래를 열어온 것처럼 앞으로도 더 큰 내일을 그려가겠습니다.
행복한 에너지기술을 향한 도전. 사람을 향한 기술, 한국전력기술

사람, 환경, 기술 그리고 사람 Engineering for Human 한국전력기술

KEPCO E&C Family 201910

APR1400(Advemced Power Reactor 1400)
한국형 원전이 엄격한 미국 원자력규제위원회(NRC)의
규제요건을 모두 충족하여 설계인증을 최종 취득했다.
-Focus 중에서-

newpower, newstandard

2019년 10월호

# KEPCO E&C Family

## Energy

세계로, 미래로 나아가는 힘
우리의 열정과 노력이
KEPCO E&C의 에너지를 만들어냅니다.


04 Focus | APR1400, 美 원자력규제위원회 설계인증 취득 외

08 청백리 | 인권경영위원회 개최 외


## &And

너와 나 그리고 우리
우리가 만들어가는 KEPCO E&C Family에는
우리들의 이야기가 담겨 있습니다.


12 우체통 | 2019년 멘토링(Mentoring) 프로그램 – 3조 외

18 문예 | 중년 감기


## Communication

더 현명하게, 더 여유롭게
더 건강하게, 더 적극적으로
세상과 소통합니다.


22 新성장지도 | 서울 도심의 시간 산책, 5대궁 돌아보기

28 Storytelling | 집에 불이 나다

30 기자칼럼 | 진짜 안부를 물어주세요

32 건강 100세 | 치매예방 위한 '뇌 건강' 생활수칙 5

34 생활과 과학 | 저주파 자극기, 계속 써도 괜찮을까?

36 Culture | Festival, Exhibition, Book, Movie

38 KEPCO E&C NEWS | 2019년도 제7차 이사회 개최 외

40 한기氏의 청렴윤리 | 만화로 보는 윤리행동강령

42 Inside Outside | 동호회 동정 외

44 인포메이션 | 2019년 상반기 해외리콜 제품 국내 유통 모니터링 결과

46 Poem | 시작

47 에코포토 | 수고에 대한 감사



**통권 453호** · **발행인** 이배수
**발행일** 2019년 10월 10일
**발행처** 한국전력기술주식회사
**등록일** 1983년 7월 20일

**주 소** 경상북도 김천시 혁신로 269(율곡동)
**전 화** 054-421-3114
**홈페이지** www.kepco-enc.com
**이 메 일** sky03tree@kepco-enc.com
**인 쇄** 화성에스지아이(054-773-7050)

# APR1400
## 美 원자력규제위원회 설계인증 취득

APR1400(Advenced Power Reactor 1400) 원전이 8월 26일(현지시간) 미국 원자력규제위원회(NRC : Nuclear Regulatory Commission)로부터 설계인증(DC : Design Certification)을 최종 취득했다.

회사는 한국수력원자력과 한국전력공사가 공동으로 추진한 APR1400의 미국 NRC DC 취득사업에 한전원자력연료, 두산중공업과 함께 참여해 왔다. 회사는 원자로계통설계, 종합설계, 인허가 문서 작성 등 설계인증 취득 과정에서 중추적인 역할을 수행하였으며, 엄격한 미국 NRC 규제요건을 모두 충족하였다.

APR1400은 지난해 9월 표준설계승인(SDA : Standard Design Approval)을 취득했고, 이후 법제화과정을 거쳐 미국연방규정(Code of Federal Regulation) 부록(Appendix)에 등재되었다. 이는 APR1400 원전을 미국 내에서 건설하고 운영할 수 있음을 의미하며, 인증은 15년간 유효하고 최대 15년 연장할 수 있다.

이번 설계인증 취득은 원자력규제가 가장 까다로운 원전종주국인 미국에서 미국 외 노형이 최초로 설계인증을 받았다는 점에서 그 의미가 크다.

또한 역대 최단기간으로 NRC 심사가 완료됨으로써 APR1400의 안전성을 객관적으로 입증하고 우리 회사 원전설계 기술력을 세계에 알릴 수 있는 계기가 되었다.

회사는 2017년 10월 유럽사업자요건(EUR : European Utility Requirements) 인증을 받았으며, 이번 NRC DC 취득을 해외 원전시장 진출 가능성을 높일 수 있는 발판으로 삼고 원전산업의 기술적 구심체로서 모든 역할을 다할 방침이다.



# 경북김천청렴문화제 연계 사랑나눔
## 헌혈행사 실시

회사는 7월 19일 대한적십자사 대구경북혈액원과 공동으로 헌혈행사를 실시했다. 이번 행사는 경북김천청렴문화제와 연계하여 지역사회 청렴문화 확산 및 헌혈을 통한 나눔문화 실천을 위해 마련되었다. 이날 행사에는 자발적인 직원들의 발길이 이어졌으며 100여 명이 헌혈에 참여했다.

회사는 2004년부터 헌혈행사를 지속적으로 실시하여 현재까지 누적 헌혈참여자 수는 2,000여 명이며, 직원들이 무상으로 기부한 헌혈증서는 직원가족 및 사회단체 등과 연계하여 수혈이 필요한 환자들에게 기증하고 있다.

정일순 상임감사는 "이번 청렴문화제와 연계한 헌혈행사를 통해 지역 전반에 청렴분위기가 조성될 수 있는 뜻깊은 행사가 되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지속적인 청렴클러스터와 상생교류 협업을 통해 청렴문화 확산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회사는 앞으로도 다양한 청렴 프로그램 개발 ·헌혈행사 실시 등을 통해 청렴도 제고 및 나눔문화 실천에 앞장설 방침이다.

# 미국 Sargent & Lundy사와 기술인력 파견사업 계약 체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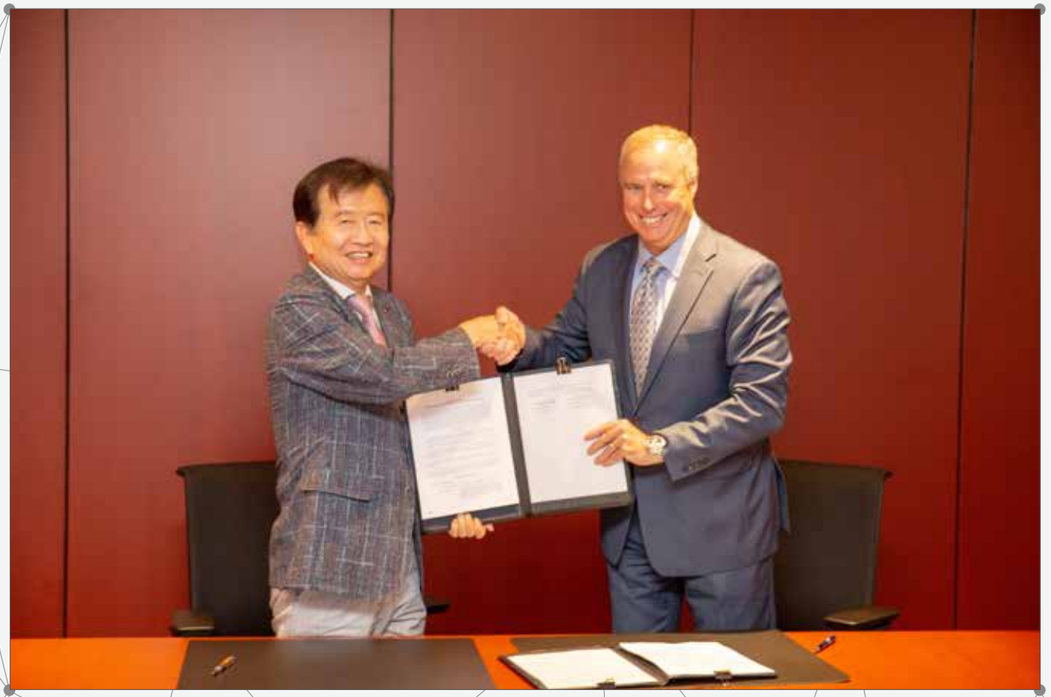
회사는 7월 12일 미국 Sargent & Lundy(S&L)사와 기술인력 지원 사업 계약을 체결하였다.

서명식에는 진태은 원자력본부장과 S&L의 해외원자력사업부문장 Thomas Beringer를 비롯한 양사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회사는 이번 계약에 따라 원전 설계 관련 기술업무 수행인력을 1년씩 S&L사로 파견하게 되며 계약기간은 2022년 7월까지다.

이번 계약은 글로벌 기업으로 혁신 성장하겠다는 CEO 경영방침에 따라 회사 글로벌 역량 확대를 위한 인력양성 목적으로 추진되었으며, 향후 양사 간 지속적인 협의를 통해 파견 분야 및 대상을 점진적으로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회사는 이번 기술인력 지원 사업 계약 체결을 계기로 해외 유수의 선진 기업에 지속적으로 직원을 파견하여 회사의 글로벌 역량을 확대하는 한편, 해외 원전 컨설팅 시장에 진출할 수 있는 발판을 마련해 나갈 예정이다.



# 2019년도 기술전문교육 기본과정 실시

2019년도 기술전문교육 기본과정이 8월 26일 인재개발교육원에서 시작됐다. 이번 교육은 2019년 10월 1일까지 총 23일간 입사 2~4년 차 기술직 및 연구직 직원을 대상으로 총 123개 교과목이 272시간에 걸쳐 진행되었다.

기술전문교육 기본과정은 해당분야 업무수행을 위한 기본적인 전문지식을 숙지하여 기술업무의 상당부분을 수행할 수 있는 수준을 목표로 하고 있다.

회사는 이번 발전소 설계엔지니어링 기본지식 교육을 통해 해당 기술분야에 대한 전문성이 더욱 강화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으며, 에너지산업을 선도하는 직무전문가 육성을 위해 지속적으로 다양한 교육을 실시할 계획이다.

# 인권경영위원회 개최

– 인권경영의 효율적·지속적 추진 및 중요 의사결정 기구 역할 –

회사는 7월 16일 김천 본사에서 2019년도 제1차 인권경영위원회를 개최하였다.

인권경영위원회는 2018년 10월 인권경영의 효율적이고 지속적 추진을 위해 설치되었으며, 인권경영 체계와 규범의 제정 등 인권경영에 대한 중요 의사결정 기구로서의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위원회는 이배수 사장을 위원장으로 내부위원 4명과 협력사 대표, 인권전문가, 사회적약자 대표, 변호사 등 외부위원 4명으로 구성되어 있다.

이번 위원회에서는 협력사를 찾아가 청렴·상생·인권 활동을 지원하는 '한기 CSI 프로그램'* 시행안과 2018–2019년도 이행실적 보고 안건에 대한 의견을 공유하였다.

회사는 앞으로도 인권경영위원회 활동을 통해 인권존중 의식향상과 문화 확산 및 인권침해 예방에 앞장설 방침이다.

* 한기 CSI 프로그램 : 협력사 대상으로 청렴·상생·인권 교육/서비스 등을 직접 방문하여 제공하는 프로그램



# 제2기 시민참여혁신위원회 위촉식 개최

회사는 7월 23일 제2기 시민참여혁신위원회 혁신위원 위촉식을 개최하였다.

시민참여혁신위원회는 회사의 혁신 추진계획 및 실행에 대한 대내외 의견을 적극 반영하여 적극적인 혁신활동을 추진하기 위해 2018년에 도입되었으며 외부위원 6명과 내부위원 4명으로 구성되었다.

제2기 시민참여혁신위원회는 위촉일(2019. 7. 12)로부터 1년 동안 혁신 추진계획 수립 및 추진과정에서의 의견 개진, 혁신 추진과제 선정 및 혁신활동 모니터링, 혁신 경진대회 및 아이디어 공모전 평가 등 회사의 대내외 혁신활동에 적극 참여할 예정이다.

위촉식에 이어 열린 시민참여혁신위원회 정기회의에서는 우리 회사 혁신 추진계획에 대한 보고가 있었으며 위원들의 적극적인 의견 개진이 있었다.

회사는 시민참여혁신위원회의 의견을 적극 반영하여 2019년도 혁신 추진계획에 활용할 계획이다.

# & And

뒷담화를 즐기는 사람이 있어요.
뱉을 땐 즐거울지 몰라도 돌아설 땐 다르겠지요.
낮말은 새가 듣고 밤말은 쥐가 듣는다 했듯이
행여 본인 귀에 들어갈까 밤잠을 설칠지도 몰라요.
내가 사랑한다고 말할 때 내 귀는 그 말을 같이 듣습니다.
좋은 말 하는 사람은 좋은 말을 듣게 되고
험담하는 사람은 험담을 듣고 사는 것이 되지요.
혹시 당신의 험담을 전해 듣더라도 따지려 들지 말아요.
세상일은 거울과 같아 주는 대로 돌려받는 답니다.
험담 귀에 달고 다닌 사람이 운인들 좋을 리 있겠어요.

하고 싶은 말 참지 못하고
콕 쏘는 말로 일침을 가하는 사람이 있어요.
상대는 상처가 되는 말에 감정을 베이고
그 상황 곱씹으며 괴로워합니다.
그러나 마음에 담아두지 마세요.
오늘이 지나면 돌아오지 않을 당신의 소중한 시간을
겨우 그런 사람 때문에 낭비하지 말았으면 해요.
그런 사람과는 말을 섞지 않는 게 답일 수도 있지만
상처는 주는 것이 아니라 받는 것이라 했어요.
내가 받지 않으면 되는 거예요.

남들의 평가에 휘둘리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성공의 크기와 행복은 꼭 비례하는 것은 아니잖아요.
모든 것의 무게 중심을 자신에게 두고
주변에 널린 작고 소박한 행복 인자들을
가슴 안에 차곡차곡 담아 보세요.
비록 자잘한 행복일지라도 그것들이 쌓이면
예민하고 날 선 신경들이 무디어 진답니다.
이제는 조금 내려놓고 편안하게 살자는 말이지요.

2019년 멘토링(Mentoring) 프로그램 - 3조

# 일과 삶, 그리고 우리의 스라밸

신입 사원들의 조직 적응력을 향상시키고 선배 사원들의 책임의식 고취 및 리더십 함양을 위해 2019년 멘토링 프로그램이 시행되었다. 멘토링 프로그램은 사내 커뮤니케이션 활성화를 도모하여 활기차고 역동적인 기업문화를 조성하는 데에 그 목적이 있다. 2018년 12월 신입사원 총 21개조 49명에 대한 3개월간의 멘토링 프로그램 결과 우리 3조 박호석(멘토), 서승희(멘티), 권재호(멘티)가 대상으로 선정되는 영광을 안게 되었다.

멘토링의 기획은 브레인스토밍 4대 원칙인 「비판금지, 자유분방, 질보다 양, 타인의 아이디어에 의견 결합하기」를 원칙으로 각자의 위치와 역할을 잠시 내려놓고 자유롭게 자신의 취미 및 관심사와 이상적인 삶에 대하여 이야기 하였다. 그 결과 일과 생활 어느 것에도 소홀함 없는 균형을 이루고자 하는 의미를 담아 『스라밸』로 결정하였다.

『**스라밸**』은 신입사원들의 직무능력 향상을 위한 스터디 활동과 삶을 풍성하게 만들어 줄 라이프 활동의 밸런스를 의미한다. 두 가지 활동의 조합을 통하여 즐거운 직장생활을 목표로 한다. 『**STUDY**』는 업무수행에 필요한 보고서 작성법에서부터 엔지니어로서 익혀야 할 기술전반에 대해 알아보는 과정이다. 더 나아가 한국전력기술의 미래를 이끌어 갈 견인차로서 향후 회사 먹거리에 대해서도 알아보도록 했다. 『**LIFE**』는 직장생활에 활력을 주며 회사의 소속감이나 공동체 의식을 강화하여 삶의 질과 행복감을 높이는 활동이다. 프로그램 선정은 구성원들간 의견을 자유롭게 취합하여 형식에 구애받지 않고 다양한 활동을 구성하고자 하였다. 우리 그룹은 『스라밸』을 핵심가치로 두고 「보고서 작성법 스터디, 탁구, 유튜브 영상 제작, 신사업 아이디어 발굴 등」의 활동을 활발하게 진행하였다.

## 보고서 작성법 스터디

보고서는 단순한 글쓰기가 아니다. 그 속에는 법적 근거와 관련 기준의 논리가 있으며, 현상에 대한 과학적 분석이 있고, 문제 해결을 위한 창의적 아이디어가 있다. 또한, 유관 기관과 부서 간 협력 관계도 스며들어 있다. 보고서 작성 능력은 업무수행 시 가장 기본적이고 중요한 능력이지만 제대로 학습할 기회는 많지 않다. 이에 멘토링 활동을 통해 보고서 작성에 대해 적극적으로 배우고 적용해 볼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해 보았다.

스터디 성과물인 「보고서 작성법」의 보고서 기본원칙을 적용하니 짧은 글을 작성하더라도 예전보다 간결하고 명확하게 문장을 작성 할 수 있었다. 비록 짧은 기간의 스터디로 당장 완벽한 보고서를 작성할 수는 없겠지만, 반복된 글쓰기 습관의 개선노력에 따라, 향후 높은 수준의 보고서를 작성 할 수 있을 것이다. 보고서 작성법 스터디를 통하여 직장생활에서의 글쓰기가 낯설고 어색한 멘티들에게 실무적으로 성장할 수 있는 소중한 기회가 되었다.

## 체력단련을 위한 탁구

탁구는 전신근육을 모두 사용하는 운동이기 때문에 단시간 내에도 탁월한 운동효과가 있다. 특히 우리 회사와 같이 책상에 장기간 앉아서 정신노동을 하는 사람들에게 피로를 풀어주고 약해진 신체 기능을 높여주며 날씨·장소에 구애 받지 않는 등 긍정적인 효과가 많기에 멘토링 활동으로 선정되었다.

당장 탁구를 친다고 하여 체력증진이 이루지 지지는 않았지만 가볍고 밝은 분위기에서 멘토와 멘티들 간 유대감이 깊어지는 것을 느꼈다. 특히 직장 선후배가 책상 앞을 떠나 함께 하는 활동이라 더욱 즐거웠고 모두 종종 모여서 탁구를 치자고 약속하였다.

## 일체감과 연대감 형성을 위한 유튜브 영상 제작

영상 제작은 시나리오 작성부터 촬영, 편집, 포스터 제작, 상영에 이르기까지 팀의 적극적인 협력 없이는 불가능한 일이다. 협력을 요하는 활동인 만큼 이를 통해 구성원 간의 일체감 조성과 연대감이 증진되고 커뮤니케이션이 더욱 원활해지는 소통의 장을 만들 수 있었다.

구성원 모두 즐겁게 영상을 촬영하였다. 촬영 중에도 아이디어를 내고 업무 분담을 하는 등 멘토와 멘티 모두가 적극적으로 참여하였고, 이러한 작업을 통해 팀워크의 중요성을 깨달았다. 앞으로의 업무 수행에 있어서도 이러한 팀워크를 통해 시너지를 발생시켜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으며 회사 생활에서 뜻깊은 추억을 만들 수 있어 즐겁고 유익한 활동이었다.

## 성장을 위한 신사업 아이디어 발굴

상황에 맞게 변화하지 않으면 성장은커녕 생존도 할 수 없다. 이것은 개인뿐만 아니라 유기적 조직인 기업도 마찬가지다. 변화의 당위성은 애벌레가 번데기로 변하고, 다시 그 번데기가 화려한 나비로 환골탈태하는 것과 같다. 알에서 깨어난 애벌레가 성장을 멈추면 따뜻한 곳에서 맛있는 잎사귀를 갉아먹는 것으로 만족하며 영원히 애벌레로 멈춰 있을 것이다. 살이 토실토실한 애벌레는 하늘을 날고 있던 새의 눈에 띄어 가장 먼저 잡아 먹히게 될 것이다.

신입사원뿐만 아니라 에너지 시장이 급변하는 현재 상황이 우리 모두에게는 변화의 과정일 것이다. 지금까지 수행해 왔던 업무를 반복하다 보면 익숙함이 되어 앞으로 나아가고자 할 때 발목을 잡을 것이다. 그때 지금의 신사업 아이디어 구상의 경험을 살려 또 다른 변화의 방아쇠가 되었으면 하는 바램으로 스터디를 진행하였다.

신사업 아이디어 스터디를 시작할 때에는 무엇을 기획해야 할지 조금 막막했다. 현실적인 부분을 고려 하다 보니 생각이 막혔으며 진전이 없었다. 그래서 우리는 스터디의 목적에 대해 다시 하나하나 생각해 보았다. 당장 실현될 사업을 구상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현실적인 문제를 조금 내려놓아도 된다고 판단하였고, 그 후에 다양한 아이디어들을 떠올릴 수 있었다. 테마파크, 쇼핑몰 등 다양한 신사업 아이디어를 구상하면서 우리는 한국전력기술이 가지고 있는 강점과 약점을 면밀히 분석할 수 있었다. 그리고 앞으로 빠르게 변화할 미래에 어떻게 대응해야 할지 경영진의 관점에서 고민해 볼 수 있는 시간이었다. 그 과정에서 우리는 한전기술의 새로운 미래를 그려볼 수 있었다.

## 멘토링 프로그램을 마치며

**박호석 과장 -** 새로운 경험은 언제나 인생을 다채롭게 해주며 기억을 풍요롭게 해 준다. 새로운 경험을 함께 해주신 멘티들에게 진심으로 감사를 드린다.

**서승희 사원 -** 영상이 회사 포탈에 올라왔을 때에는 부끄러운 마음이 많이 들었는데, 다행히 많은 사람들이 재밌게 시청해 주셨고 평소에 자주 얘기를 주고받지 못했던 분들과도 대화할 기회가 생기기도 했다. 멘토링은 끝나지만 우리가 함께 한 즐거운 추억들은 오래 기억될 것이다.

**권재호 사원 -** 멘토링 활동이 우리의 처음 목표인 『스라밸』을 이룬 것 같아 뿌듯했다. 소중한 신입 사원 시절에 남긴 인상적인 추억이 될 것 같다. E&C

## 신입사원 교육을 마치며

# 43기라는 이름으로 하나되다

Engineering for Humans 한국전력기술

24~40살의 나이 스펙트럼과 다양한 환경에서 성장해 온 49명,
2주간의 교육 후 우리는 43기라는 이름으로 하나가 되었다. 그 과정을 다시 돌이켜보고자 한다.

**[ 첫 만남: 짧지만 강렬했던 ]**

작년 12월 26일, 크리스마스의 여운이 채 가시기 전 진행된 신입사원 임용식, 사장님께서 목에 걸어주신 사원증을 보며 입사를 실감할 수 있었다. 연이어 사장님께서 한국전력기술의 수행 사업, 비전, 핵심가치 등에 대해 설명해 주셨다. 그 중 가장 기억에 남는 것은 '사훈' 이었다. "열심히 공부하며 성실하게 일하자" 학교가 아닌 회사에서 열심히 공부하자라는 사훈이 조금은 낯설게 느껴졌다. 하지만 과거, 선배님들이 타국에서 밤을 새며 '원전기술 자립'을 목표로 열심히 공부하며 이룬 현재의 모습을 봤을 때, 사람이 곧 자산인 엔지니어링 회사에 걸맞는 사훈임을 생각할 수 있었다. 짧지만 강렬했던 첫 만남이었다.

**[ 교육 입소: 기본 소양을 익히다 ]**

신입사원 임용식을 마치고 우리는 경기도 이천으로 향했다. 산으로 둘러싸인 한적한 마을에 위치한 교육원에서 약 2주간의 교육이 시작되었다. 교육은 한 조당 5명씩 10개 조로 나뉘어 운영되었다. 조원들과 처음 마주한 자리여서 잠시 어색한 기류가 흘렀다. 하지만 곧 이어진 '아이스 브레이킹'에서 공식적인 탐색 후, 쉬는 시간에 사적인 탐색을 통해 사회적 거리를 좁힐 수 있었다.

교육은 다각도로 이루어졌다. 한전기술 역사, 자화상 그리기, 동영상 제작 등 교육명은 달랐지만, 대부분 팀웍을 중시하는 내용들이었다. 작은 단위로는 '팀'으로 크게는 '한전기술'라는 이름으로 목표 달성을 위해서는 반드시 필요한 부분이었다. 제한된 시간 내에 결과를 도출하기 위해서는 의견합치의 과정이 필요했다. 다양한 가치관과 성향을 가진 팀원 5명의 의견을 하나로 이끌어 내기는 쉽지 않았다. 하지만 말하기보다는 듣기를, 비난보다는 긍정의 자세로 토의에 임하였고, 점차 하나의 팀이 되어감을 느낄 수 있었다. 이 과정에서 서로에 대한 '배려'와 '소통'이 얼마나 중요한지 다시 한번 깨닫게 되었다.

**[ 조별 과제: 새로운 시도 ]**

동기들에게 교육 중 가장 기억에 남는 한 가지를 물어본다면 단연 '조별 과제'를 들 것이다. 교육 평가에서 많은 점수를 차지하는 부분이며, 팀원들과 가장 많은 시간을 보낼 수 있었기 때문이다. 주제는 5가지 핵심가치를 다양한 방법으로 표현하는 것이었다. 표현 방식이 자율적이었기 때문에 우선 발표 방식을 정해야 했다. 우리 조는 '상황극'을 통해 핵심가치를 표현하고자 했다. '핵심가치 내재화'가 교육 목표였으며, 내재화의 가장 좋은 방법은 몸소 실천해 보는 것이라 생각했기 때문이다. 발표 시간이 약 20분으로 비교적 짧아 신뢰, 도전, 소통 3가지 핵심가치를 다루었다.

우리 조는 '자랑스러운 한전기술人'으로 선발된 '안 부장'이라는 가상의 인물을 통해 상황극을 진행하였다. 그리고 각 핵심가치는 영상으로 제작하여 회상하는 방식으로 표현하였다. 발표 후 지금까지 보지 못한 새로운 방식이라 흥미로웠다는 평가를 받을 수 있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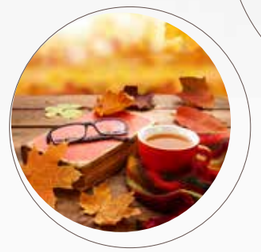
발표를 위해 5명의 조원 모두 공대생으로서 난생 처음 대본, 연출, 영상편집 작업을 해야 했다. 때로는 12시 너머까지 작업이 이어졌지만, 힘들기보다는 즐거운 순간들이었다. 그 결과, 불가능할 것이라 생각했던 작업들을 이루어 냈다. 모두가 열심히 준비하였고, 성취감을 맛 볼 수 있는 소중한 순간이었다.

**[ 교육 종료: 새로운 시작 ]**

돌이켜보면 교육 전 두 가지 걱정이 앞섰다. 첫째는 '30대', '중고신입'이라는 수식어 앞에 다양한 나이의 동기들과 쉽게 어울릴 수 있을까? 라는 생각이었다. 교육이 끝난 지금 그것은 정말 '기우'였다는 생각을 한다. 다양한 교육을 수료하며 나이라는 숫자 대신, 동기라는 소속으로 하나 되었기 때문이다.

두 번째는 김천이라는 지역이었다. 김천은 다른 도시와 비교하여 교통 및 편의시설 부분에서 상대적으로 부족했기 때문이다. 하지만 지금은 일과 후 동기들과 스포츠, 맛집 탐방으로 김천의 숨겨진 매력을 발굴하고 있다.

신입사원 교육을 마치고 49명의 동기들은, 각자의 위치에서 저마다의 꿈과 사명을 안고 새로운 출발을 하고 있다. 새로운 환경과 업무를 마주하며 많은 고난과 역경도 마주하게 될 것이다. 하지만 입사 때 가슴에 품은 열정과 교육에서 터득한 여러 내용들을 잊지 않고 실천한다면 잘 극복할 것이라 생각한다. E&C



# 중년 감기

10월의 어느 햇살 좋은 오후 하늘 마저 마음에 담고 싶은 날
동네 등산로 벤치에 앉아 가을을 담은 나무들을 바라보며
문득 지나온 내 청춘이 곱게 물든 단풍들 사이로 오버랩되어 지나간다.

'아! 나도 저 때가 있었지. 곱게 물든 저 단풍들처럼 예쁘고, 아름답고, 빛났을 때가' 적당히 비춰오는 햇살은 바람을 머금고 나뭇가지 사이로 별을 쏟아내며 내 눈에 들어온다. 마치 지나온 내 청춘도 그러했다고 말하듯 잠시 벤치에 몸을 기대 눈을 감아본다.

내 나이 27살에 결혼해 28살에 엄마가 되어 엄마와 아내, 며느리로 내가 살아왔던 둥지를 떠나 그렇게 새로운 둥지를 틀며 살아온 20년 세월. 우여곡절도 많았던 내 인생의 절반 쉼 없이 앞만 보고 걸어왔다. 어느 날 문득 뒤를 돌아보니 거울 속에 나는 이미 중년의 아줌마가 되어 있었고 내 손길을 필요로 했던 가족들은 어느새 나 없이도 살아갈 수 있는 자립심들이 생겨났다. 순간 '나는 이 집안의 구석 어디쯤 놓여 있는 가구가 아닐까? 필요하면 찾게 되는….' 그런 생각에 씁쓸해진다. 분명 나도 다 마시고 버려진 미지근한 공병 같은 존재가 아닌 누군가의 갈증을 시원하게 해소했던 그런 존재였을 텐데 '이젠 내가 설 자리가 점점 없어지는구나'라는 고독감이 밀려온다.

새벽 6시 알람이 채 울리기도 전에 일어나 하루를 시작한다.
남편과는 남편회사가 지방으로 이전하는 바람에 벌써 일년이 넘는 시간을 주말 부부로 지내고 있다. 분주하게 딸아이의 아침밥을 차려놓고 "애기야~ 일어나~ 학교 가야지~ 밥 먹어~" 오늘도 내 목소리는 알람이 되어 딸아이를 깨운다. 부스스 잠이 덜 깬 눈으로 안경을 찾는 딸아이를 대신해 안경과 아이팟을 손에 쥐어주면 늘 그러하듯 식탁에 앉아 밥을 먹는다. 고3 수험생이라 마주 앉아 얘기할 시간이 많지 않아 행여나 말이라도 붙일라치면 귀찮은 듯 살짝 찡그린 표정으로 "엄마 미안한데 그냥 아침밥 먹을 때 말 걸지 않음 안돼?" 한 소리 듣고 "알았다~ 미안 밥 먹어"하고 포기한다. 서운하지만 예민한 시기니 그 마음을 십분 이해하기에 그래도 아침밥이 보약이라는데 거르지 않고 먹어주는 딸아이가 고마워 위안을 삼곤 한다.

딸아이가 학교를 가고 나면, 온전히 혼자가 되는 시간들 예전 같으면 뭐라도 배우며 바쁜 나날을 보냈을 테지만 나이를 먹는다는 것일까? 감기란 놈이 내게도 온 것일까? 요즘 나는 귀차니즘과 게으름 사이에서 방황하고 있는 듯하다. 부지런하고 손재주도 많아 이것저것 하루가 모자라게 살았었는데 지금에 나는 고작 하는 일이라곤 소파에 누워 밀린 드라마와 친구랑 수다를 떠는 게 다다. 누구나 특별하게 사는 건 아니라지만 세월을 빗겨 갈수는 없는 것 일까? 친구를 만나도, 맛난걸 먹어도, 항상 허전함이 남는다. 이유 없이 화가 나고, 꼬투리잡고, 화끈 열이 솟았다 내렸다. 쓸데없이 감수성이 예민한 건지. 우울감에 난데없이 눈물만 난다.

어느 날 이런 내가 황당했는지 남편이 내게 어이없는 표정으로 "당신 요즘 왜 그러는지 대체 알 수가 없어. 왜 그러는데?" 요즘 딸아이도 수능 스트레스로 인해 아빠한테 곱게 얘기 할 일이 만무하니 아빠로써는 당연히 그렇게 말할 수 밖에 없다지만 나로선 서운한지라 가족과 떨어져 홀로 지내는 남편이 안쓰러움에도 "이럴 거면 오지마!" 생각과는 다르게 마음에도 없는 막 말을 내뱉고 나면 속이 좋을 리가 없지만 그 놈에 자존심 때문에 토라지곤 한다.

나에게도 진짜 감기란 놈이 찾아 온 것일까? 그래서들 감기를 이겨내기 위해 일들을 하는 것일까?
요즘 친구들이 하나 둘씩 알바들을 하기 시작한다. 돈이 필요해서라기 보다는 사람들과 소통이 필요해서 인 것 같다. 어느 날 친구한테 물었다. "알바 힘들지 않아? 애들 다 키웠는데 편히 지내지. 힘들게" "아냐~ 아침마다 어딘가를 갈 수 있다는 게 행복해~ 몸은 고되지만, 집에 있음 누가 나한테 월급 주겠니? 남의 돈 먹는 게 쉬운 건 아니니 피곤은 감수 해야지~ 그래도 요즘 살맛 난다~ 하하!!" 수화기 넘어 친구의 목소리가 그 어느 때 보다 행복해 보였다. 화려하고 젊었던 시절은 가족들에게 다 내어주고, 훈장처럼 새겨진 주름과 지루하게 살아온 삶 속에서 행복을 찾았다는 듯 웃는 친구가 한없이 부러웠다.

나이를 먹는다는 것, 감기를 앓는다는 것은, 사람 마음도 옹졸하게 만드나 보다. 어느 순간부터 친구들이 하는 사소한 말에도 가시 돋친 말로 상처를 주곤 하는 나 자신을 볼 때마다 나 스스로에게 실망한다.
사실 이젠 잘 모르겠다. 어떤 때 마음을 얼마만큼 열어야 하는지 너무 많이 열면 내가 상처 받을까 봐 두려운지도 모르겠다.

누군가 그랬다. '지는 것 또한 인생이고 아픈 것 또한 인생이라고.' 감기를 앓는다는 것은 누구나 한번쯤 걸리는 아픔일 수 있기에 감기를 잘 견뎌 지치지 않고, 걸어가는 한걸음 한걸음이 예쁠 수 있도록 지금까지 힘껏 버텨온 나에게 '쓰담쓰담' 위로를 해 본다. 그립다. 빛났던 마냥 행복했던 철없고 아름다웠던 그때가. 감기는 누구나 걸리고 누구나 이겨내는 것이니까.

멋진 가을을 맘껏 만끽하고, 지나가는 가을을 슬퍼하지 않을 만큼 지는 나의 인생아. 아픈 감기야. 이 고독 속에서 길을 잃지 않도록 나는 내 삶에게 오늘도 부탁한다. 오늘도 잘 지내 보자고. 나를 위해서 '괜찮다 괜찮다' 위로하며 세상 가장 편안한 마음으로 천 마디의 말보다 미소로 나 자신에게 답을 전한다. "괜찮아 다 잘될 거야" E&C

# Communication

'오지랖'의 본래 뜻은 웃옷이나 윗도리에 입는 겉옷의 앞자락이다.
남의 일에 분별없이 나서는 사람을 우리는 '오지랖이 넓다'고 한다.
조선 초기 이전엔 '저고리'라는 개념이 없었다.
목욕 가운처럼 긴 옷에 허리끈을 묶어 고정시켰고,
그러다 길이가  점점 짧아지면서 저고리와 바지 또는 치마로 분류되고
허리띠 대신 저고리 안팎에 고름을 달아 그것을 묶어 여미게 되었다.
그럼에도 옆에서 보면 속이 들여다보여 앞가림을 잘 할 수 있게
한 치 가량의 천을 덧댔고 그 덧댄 부분을 오지랖이라 한다.
한때 '너나 잘하세요.' 라는 말이 유행한 적 있다.
친절을 베푸는 쪽은 관심이라고 하지만 받아들이는 입장에 따라
참견이나 간섭이 될 수도 있기에 오지랖과 친절의 경계는 늘 모호하다.

얼마 전 집 근처 아울렛 매장에 다녀오던 길이었다.
지하 1층에 마트가 있고 그 옆으로 나가면 지하철과 연결 된다.
그리고 지하 2층은 주차장이다.
에스컬레이터를 타고 주차장으로 내려오는데
출입문 앞에서 우왕좌왕하는 할아버지 한 분을 발견했다.
오지랖 발동하여 모른 척하고 그냥 지나칠 수가 없었다.
조심스레 다가가서 지하철역으로 가실 겁니까. 하고 물었다.
그렇다고 했다. "잘 못 내려오신 것 같아요.
이쪽에서는 올라가는 계단도 없고 에스컬레이터도 없어요.
저기 있는 엘리베이터를 타고 한 층만 더 올라가시면 됩니다.
여기는 나가는 문이 참 애매하지요.
처음 오시는 분들은 많이 헷갈려 하십니다.
저도 처음 왔을 때 주차장을 못 찾아 헤맨 적이 있었거든요."
할아버지는 연신 고맙다고 했고, 나는 엘리베이터 앞까지 따라가며
묻지도 않는 말을 친절이랍시고 주절거렸다.
문이 열리자 안쪽에 있는 지하1층을 눌러주고
안녕히 가시라는 인사까지 하고 돌아섰다.
돌아오는 차안에서 생각했다. 친절일까 오지랖일까.
이미 마음의 일기장엔 '참 잘 했어요.' 스탬프 하나 꾹 눌러놓고.

# 서울 도심의 시간 산책

## 5대궁 돌아보기

서울은 우리나라의 수도로 600여 년의 시간을 간직한 도시다.

조선왕조 오백 년의 수도였고, 다시 대한민국의 수도로

긴 역사의 시간을 이어가고 있다.

조선의 흥망성쇠를 보내고 전쟁과 산업화를 겪으며 옛 모습이 많이 남아있지 않는 것은 아쉽지만 세계적인 도시로 성장해가는 모습이 마음 한편으론 뿌듯하기도 하다. 수려한 건물들과 잘 정비된 거리, 점차 풍성해지는 녹지와 은은한 도심의 야경이 볼만하다. 근래의 서울은 문화도시로서의 역량을 높여가고 있다. 문화유산을 정비하고 전통을 소재로 한 축제나 행사들이 열린다. 사대문 안 옛 육의전 길이었던 종로와 인사동이 축을 이루고 그 중심에 고궁이 있다.

01

## 파란만장했던 법궁 경복궁

1394년, 태조는 한양을 새로운 수도로 정하고, 정도전을 비롯한 신하들을 보내어 궁궐과 종묘사직이 들어설 자리를 정하도록 명한다. 서울은 바깥쪽으로 북한산, 관악산, 아차산, 덕양산, 안쪽으로는 주산인 목멱산(남산), 백악산, 인왕산, 타락산(낙산)이 동서남북으로 겹겹으로 감싸고 있는데, 그 너른 품의 중심, 넉넉한 평지에 궁궐터를 조성하게 된다. 그 해 10월 태조는 종묘와 궁궐의 위치만 정한 채 개경을 떠나 한양에 도착해 한양부 객사를 이궁으로 삼아 정무를 집행하기 시작했다. 이에 따라 궁궐조성도 촉진되어 이듬해인 1395년 9월 25일에 대체적인 공사가 마무리되었다. 조선왕조 최초의 궁궐인 경복궁이 창건된 것이다. 경복궁의 경복은 '큰 복을 누리며 번성하라'는 뜻으로 정도전이 지어 올린 것이다. 법궁은 국가와 왕실의 존엄을 보여주는 곳으로 당대 최고의 역량이 동원되고 최대 규모로 지어져야 마땅하지만, 서둘러 공사를 마무리했기에 규모 면에서 그리 대단한 것은 아니었다. 게다가 두 차례 왕자의 난을 겪는 등 정정의 불안으로 개경 천도와 한양 환도를 거듭하는 바람에 경복궁은 10여 년간 사실상 제구실을 하지 못한 채 비어 있었다. 그러다가 태종이 창덕궁을 세워 환도하면서 경복궁도 중건을 하게 된다. 태종 즉위 11년(1411) 명당수 금천을 끌어와 주위를 아름답게 가꾸고 이듬해 경회루를 지었다. 이리하여 법궁인 경복궁과 이궁인 창덕궁을 오가며 정사를 보는 양궐체제가 이루어지게 된다. 16세기까지 꾸준히 증축과 신축을 거듭해온 경복궁은 임진왜란 때 큰 피해를 입었다. 그 후 창덕궁이 법궁으로 사용되다가 무려 273년 후인 고종 2년(1865) 흥선대원군에 의해 대대적인 재건공사가 이루어진다. 현재의 경복궁의 전각은 대부분 고종 때 중건된 것들과 1990년 이후 복원된 것들이다.

## 실질적 조선왕조 법궁이었던 창덕궁

창덕궁은 한양으로 다시 환도한 태종이 1405년 창건한 궁궐이다. 준공될 당시 규모는 외전 83칸 내전 195칸 총 278칸으로 755칸이었던 경복궁의 3분의 1 규모였으나 태종의 임기 내내 지속적인 증축이 이루어졌다. 태종 6년에 경복궁의 경회루와 비슷한 광연루가 세워졌고, 후원에는 해온정이 들어섰으며, 태종 11년에는 진선문과 금천교를 놓았고, 이듬해에는 정문인 돈화문이 만들어졌다. 태종의 뒤를 이은 세종은 즉위를 경복궁에서 하였으나 창덕궁으로 거처를 옮기고 집무하였다. 이때부터 실질적인 법궁의 역할을 하게 된 것이다. 조선의 역사를 통틀어 경복궁의 사용 기간이 250여 년이었고, 창덕궁은 520여 년 동안 궁궐의 기능을 수행했다. 1910년 인정전에서 한일합방이 이루어지고 1919년 고종이 승하하자 일제는 역대 왕의 어진이 모셔진 선원전을 후미진 곳으로 이전하고 전각들을 제멋대로 개축하는 왜곡을 일삼았다. 급기야는 1926년 순종마저 승하하자 인정전의 행각과 인정문을 헐고 그 자리에 각종 편의시설을 만들고 일반인의 관람을 허용하기에 이르렀다. 이러한 상황은 광복 후까지 이어지다가 1976년부터 대대적인 정비공사를 통해 부족하나마 제모습을 찾기 시작했다. 경복궁이 너른 터에 지어진 광활하고 평면적인 공간이라면, 창덕궁은 오밀조밀한 내실과 아름다운 후원을 갖춘 격조 높은 공간이다. 자연과 잘 어우러진 궁궐의 전각과 후원을 거닐다 보면 오래도록 애용해 왔던 왕가의 애정이 느껴진다. 창덕궁은 후원과 더불어 1997년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으로 지정되었다.

## 식민역사의 아픔을 간직한 창경궁

창경궁의 처음 이름은 수강궁으로 1418년 왕위에 오른 세종이 상왕인 태종을 모시기 위해 지은 궁궐이다. 수강궁이 창경궁으로 바뀌게 된 것은 성종에 이르러서다. 성종 13년(1482), 창덕궁의 수리를 논하는 자리에서 세조의 비 정희왕후, 덕종의 비 소혜왕후, 예종의 계비인 안순왕후를 모시기 위해 폐허처럼 변해버린 수강궁의 수리를 명하면서 시작되었다. 명정전과 문정전, 통명전 등 주요 전각들이 이때 새로 지어졌으며, 이름도 창경궁

03

07

08

02

04

01 법궁의 풍모와 위엄을 지닌 경복궁 근정전 02 창덕궁의 법전인 인정전 03 오전 10시, 오후 1시 경복궁 수문장 교대식이 두 차례 진행된다 04 창덕궁 인정전으로 들어가는 금천교 05 경복궁의 연회장소로 쓰였던 경회루 06 자경전 담장에 새겨진 십장생 07 근정전 월대의 돌짐승 조각 08 왕이 집무를 보던 인정전의 용상

05

06

으로 바뀌었다. 이듬해 보완공사를 거쳐 궁궐다운 규모를 갖추게 된 창경궁은 창덕궁의 부족한 기능을 보완하는 궁궐로 자리 잡게 된다. 그후 소실을 거듭하다가 현재 남아있는 전각들은 대부분 순조 때에 새로 만들어진 것들이다. 창건이래 끊임없이 소실과 복원이 반복되었지만, 궁궐로서의 위상을 지켜왔던 창경궁은 일제 강점기에 들어서며 심각하게 훼손된다. 1907년 순종이 즉위하면서 일제는 창경궁의 전각들을 헐고 그 자리에 동물원과 식물원을 만들고 이름도 창경원으로 개명한다. 정조가 어머니 혜경궁 홍씨를 위해 지은 자경전 터에 박물관을 짓는가 하면, 궐 내에 벚나무를 빼곡이 심고 일반인에게 개방하여 유원지로 이용되었다. 겉으로는 순종을 위한 일이었다고 하나, 왕실의 상징성을 격하시키려는 목적이었다. 1984년부터 복원공사가 시작되어 지금에 이르고 있다.

## 덕수궁과 경희궁

덕수궁의 원래 이름은 경운궁이다. 세조의 큰아들 도원군이 세자로 책봉되고 얼마되지 않아 요절하자 세자빈 한씨를 궁에서 내보내며 마련한 거처가 경운궁이었다. 임진왜란 때 피난갔던 선조가 한양으로 환도했으나 왕이 머무를 궁이 남아 있지 않았다. 이때 월산대군의 사저로 이용되던 경운궁을 행궁으로 삼아 머물게 되니 이때부터 이곳이 궁궐의 역할을 수행하게 되었다. 광해군 때 중건이 이루어져 비로소 궁궐의 면모를 갖추었고, 한때 광해군의 계모인 인목대비가 유폐되어 서궁으로 불리기도 했다. 경운궁이 다시 궁궐로 쓰이게 된 것은 고종의 아관파천 때이다. 1907년 고종이 일본의 압력으로 왕위에서 물러나고 순종이 즉위하게 되는 데 경운궁 돈덕전에서 즉위식이 거행되었다. 이때 고종이 덕을 누리고 오래 살라는 의미로 덕수궁이 되었다. 광해군 때 만들어진 경희궁은 숙종과 경종이 태어난 곳이며 숙종, 영조, 순조가 승하했으며 경종, 정조, 헌종이 즉위한 곳이다. 인조 이후 역대 왕들의 별궁으로 애용되었으니 작고 아담한 규모에 비해 쓰임새가 컸던 궁궐이다.

09 왕과 왕비의 침실인 대조전. 왕의 거처엔 용마루가 없다 10 창덕궁의 고풍스러운 단청 11 대조전 뒤뜰의 정원 12 덕수궁 중화문과 중화전 야경 13 가을빛이 물드는 창경궁 통명전 일원 14 액운을 막아주는 창경궁의 석수 15 품계석이 늘어선 경희궁 숭정전

## 경복궁 별빛야행과 창덕궁 달빛기행

선선한 바람이 부는 가을 저녁, 교교히 달빛이 흐르는 고궁을 거닐어 보는 것은 어떨까? 단풍이 물드는 낮의 고궁도 더할 나위 없이 좋지만, 빛이 사윈 고즈넉한 고궁은 특별한 운치와 시공을 만나보는 경험이 될 듯싶다. 고궁 해설사들의 진솔한 고궁 이야기와 다양한 이벤트들이 준비되어 있다. 단 인원 제한이 있고, 워낙 인기가 많아 예매가 결코 쉽지는 않다. 예매 개시 후 1분 안에 매진된다. 경복궁은 10월 11일 오후 2시 예약이 시작되며, 창덕궁은 8월부터 시작되어 매진되었지만, 예약 취소 표를 노려볼 만하다. 창경궁과 덕수궁은 휴무일인 월요일을 제외하고 상시 야간관람이 가능하다. (오후 8시 입장마감)

▶ **경복궁 야간개장**
10월 20일부터 11월 6일까지 매주 일, 월, 수요일 오후 7시 입장,
예매 / 10.11(금) 오후 2시부터 진행

▶ **창덕궁 달빛기행**
10월 27일까지 매주 목, 금, 토 오후 7시, 8시 입장,
예매 / 8월 14일부터 진행 E&C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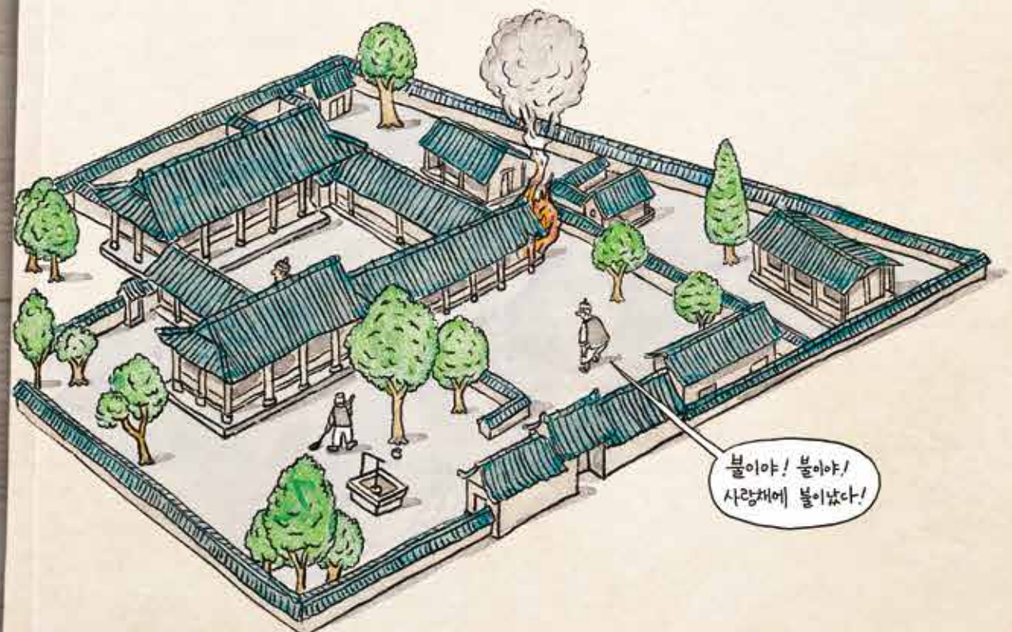
# 집에 불이 나다

| | |
|---|---|
| 일기분류 | : 생활일기 |
| 출 전 | : 매원일기(梅園日記) |
| 시 기 | : 1628년 9월 28일 ~ 10월 15일 |
| 인 물 | : 김광계 |
| 주 제 | : 화재 |
| 장 소 | : 경상북도 안동시 |

1628년 늦가을, 김광계의 집에 반가운 손님이 찾아왔다. 류암에게 시집간 둘째 누이가 동생과 함께 온 것이다. 김광계는 오랜만에 누이와 형제들을 만나 반가웠으나, 도착한 다음날부터 누이가 갑자기 곽란 증세를 심하게 일으키고 기절할 정도로 앓는 바람에 한동안 온 집안이 들썩였다. 누이가 나아지고 나니 스트레스 탓인지 김광계 본인이 복통을 앓았다. 연이어 박회무에게 시집간 큰 누이도 조카를 데리고 방문했다.

여러 모로 집안 식구들 모두가 정신없을 만한 때에, 마침 계절은 건조하고 바람이 부는 늦가을이었다. 그만 화재가 발생하고 말았다. 다행히 동네 사람들이 찾아와 도와준 덕에 사랑채 두 칸을 태우는 선에서 진화 되었으나, 김광계와 식구들은 크게 놀랐을 것이다. 수도시설도 없고 목재로 집을 지었던 조선시대에 화재는 드물지 않게 일어났고 한 번 터지면 피해도 심각하기 마련이었다. 김광계 집의 화재가 사랑채 두 칸만 타고 끝난 것은 동리의 이웃들이 그만큼 열심히 나서서 불끄기를 도왔기 때문이었을 것이다. 평소 김광계가 이웃들에게 어떻게 처신했을지 미루어 짐작할 수 있는 대목이다.

다행히 불탄 사랑채는 이틀 만에 대강 수습되었다. 사흘 뒤 둘째 누이의 생일이 되었을 때, 김광계는 실로 오랜만에 할머니를 모시고 형제자매와 다 같이 모여 즐겁게 먹고 마시며 기뻐할 수 있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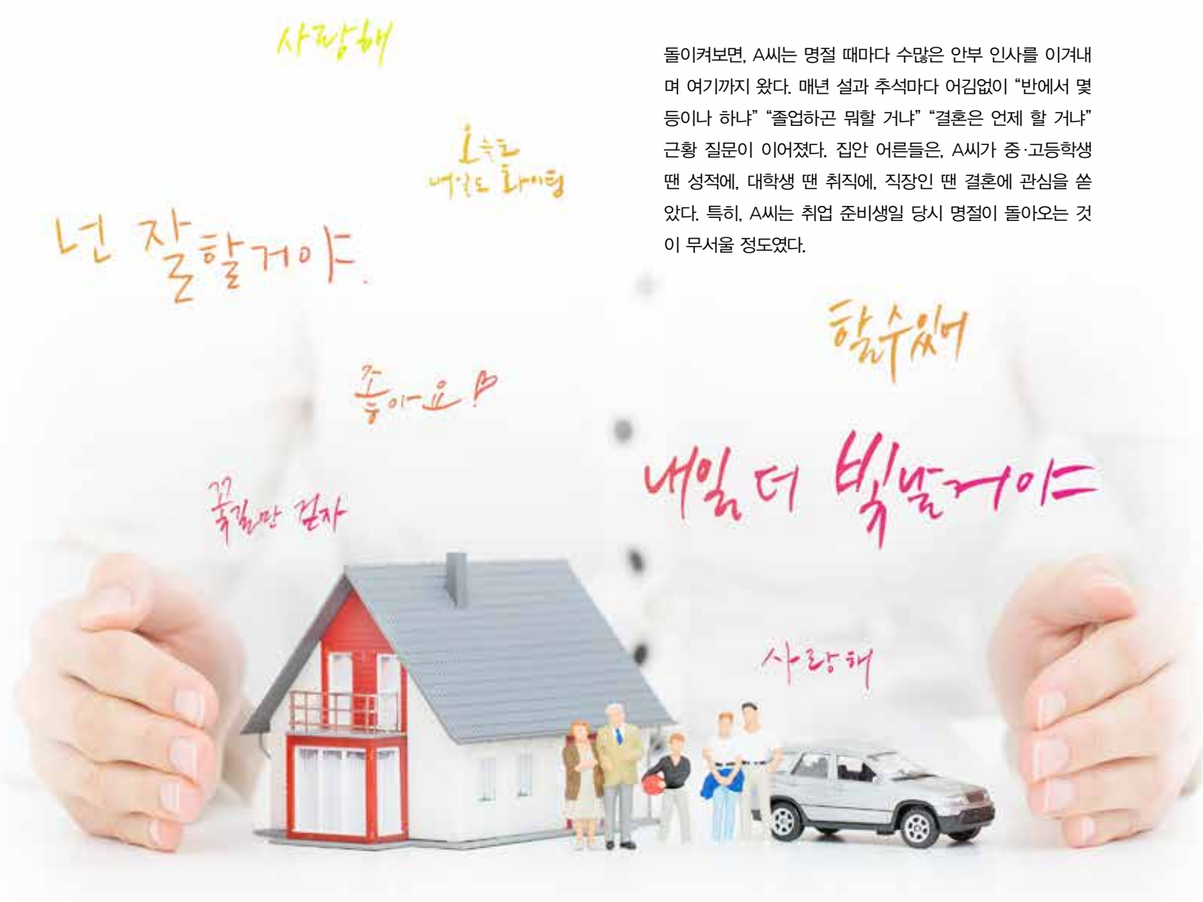

◆ **조선시대 소방업무**

조선시대에는 방화 업무(防火業務)를 관장하는 금화도감(禁火都監)이라는 관청이 있었다. 주로 도성 내의 궁궐이나 주요 건물 등의 화재를 진압했다. 세종 8년(1426년 6월 19일)에 성문도감과 금화도감이 통합되어 수성금화도감이 된다. 수성금화사(修城禁火司)는 도성의 수축·개축과 소방을 담당하던 정4품의 관청으로써 화재가 발생했을 때 각 관사 관원이 소화업무에 종사할 수 있도록 구화패(救火牌, 금화판禁火板)이라는 증명패도 발급했다. 태종실록, 태종 17년(1417년, 11월 10일)에는 화재 방지를 위해 실화자를 처벌하는 법령인, 금화령(禁火令)도 발령했다. 세종 8년(1426년 3월 3일)에는 금화도감에서 금화하는 일에 대해 매우 자세하게 기록되어 있다. "1. 불을 끄는 사람이 인정(人定)이 지난 뒤에 불이 난 장소로 달려가다가, 혹 순관(巡官)에게 구류를 당하여 제때에 달려가서 끄지 못하게 되오니, 그들에게 신패(信牌)를 만들어 주어 밤중에 불을 끄러 가는 증명이 되게 할 것. 1. 화재가 발생했을 경우, 각처의 군인은 병조에서, 각 관청의 노예는 한성부에서 사찰하게 할 것. 1. 화재가 뜻밖에 발생했을 때에 멀리 떨어져 있거나, 혹은 밤이 깊어서 담당 관원이나 군인이 잘 알지 못하여 제때에 불을 끄지 못하게 되오니, 의금부로 하여금 종루(鍾樓)를 맡아 지키게 하여, 밤낮으로 관망하다가 화재가 발생한 곳이 있으면, 곧 종을 쳐서 소리를 듣고 곧 달려가게 할 것입니다." 하니, 명하여 계한 대로 따르게 하되, 관공서에서 화재가 났을 때에만 종을 치게 하고, 그밖에는 치지 말도록 하였다.

그 외 조선왕조실록에는, 하천을 관리하는 일을 금화도감에서 겸하여 맡게 하거나, 금화도감과 성문도감을 병합한 관청을 공조에 속하게 하며, 실화한 사람들의 처벌을 수성금화도감에서 건의하고, 금화도감의 책임 관리를 국문하게 하는 등 관련 기사가 매우 많다. 한편, 삼국시대에도 구휼정책과 부락단위의 자체적인 소방활동이 있었다고 하며, 고려시대에도 화재를 관리하고, 실화한 사람의 처벌 규정을 정리한 금화제도가 있었다고 한다. E&C

– 출처 : 한국국학진흥원 –

# 진짜 안부를 물어주세요




## 입시, 결혼, 출산…또다시 찾아온 명절의 압박

"아기는 언제쯤 가질 생각이냐." 올 것이 왔다. 올 추석도 그냥 넘어가지 않았다. '민족의 대이동'을 뚫고 큰집에 입성한 A씨에게 친척들은 기다렸다는 듯 명절용 안부 인사를 건넸다. 지난 설, 작년 추석에 이어 또다시 과제를 끝마치지 못한 30대 후반, 결혼 3년 차의 A씨는 죄인이 된 것만 같았다. 이를 아는지 모르는지 "준비는 하고 있냐" "더 늦기 전에 낳아야 한다"는 추가 질문과 조언이 이어졌다. A씨는 그저 빙그레 웃을 따름이었다. 준비했던, "제가 알아서 할게요"라는 대답은 가족의 화합과 화목을 위해서 접어두었다. '다 잘되라고 하시는 말씀이다' 생각하며 넘겼다. 하지만 다음날 방문한 아내의 큰집, 방심한 순간 재차 안부 공격이 들어온다. "그래, 그래서 아이 소식은 아직 없고?" 아뿔싸! 심지어 이건 A씨의 마음대로 되는 일도 아니지 않는가.

돌이켜보면, A씨는 명절 때마다 수많은 안부 인사를 이겨내며 여기까지 왔다. 매년 설과 추석마다 어김없이 "반에서 몇 등이나 하냐" "졸업하곤 뭐할 거냐" "결혼은 언제 할 거냐" 근황 질문이 이어졌다. 집안 어른들은, A씨가 중·고등학생 땐 성적에, 대학생 땐 취직에, 직장인 땐 결혼에 관심을 쏟았다. 특히, A씨는 취업 준비생일 당시 명절이 돌아오는 것이 무서울 정도였다.

그렇게 대학도 가고, 직장도 얻고, 결혼까지 했건만 싸움은 끝나지 않았던 거다. 다시 넘어야 할 산, 출산의 문제가 다가왔다. 문제는 내년 설이 다시 찾아오고, 숙제 검사도 이어질 것이다. 예전엔 그런 부담스러운 안부를 물으신 후 용돈이라도 주셨는데, 이제는 나이 들었다고 용돈도 주시지 않아 그저 황망할 따름이다.

## 안부 인사는 '편안하게 잘 지내냐' 묻는 일

A씨는 단순히 가상의 인물이 아니다. 이런 명절의 일상이 A씨만의 경험도 아닐 것이다. 명절 스트레스, 명절 증후군은 본디 여성들에게 집중된 명절 가사 노동의 문제성을 일컫는 단어였으나, 최근에는 말의 형태로 다가오고 있다. 각종 여론 조사에서 명절 비용, 명절 노동, 교통 체증 등이 명절 스트레스의 원인으로 지목되는 가운데 단연 높은 순위를 차지하는 항목은 '잔소리'다. 분명 발언자의 목적은 잔소리가 아니었을 텐데, 설문 상으로는 그리 표현되고 있다. 받아들이는 자들의 마음이 그러한 것이다. 온라인에는 명절 중 상처받은 '멘탈(정신 건강)'을 회복하기 위한 다양한 방법과 책들이 많이 소개돼 있다. "노후 준비는 다 하셨습니까" "승진은 아직이십니까"라고 역질문을 하라는 웃지 못할 대처법도 나와 있다. 아예 이런 대화를 사전 차단하기 위해 귀향 자체를 피하는 이들도 늘어나는 추세다. 이쯤 되면 명절 인사법을 재정립할 필요가 있어 보인다.

'어떤 사람이 편안하게 잘 지내고 있는지 그렇지 아니한지에 대한 소식. 또는 인사로 그것을 전하거나 묻는 일'. 안부(安否)의 사전적 의미다. 그런데 명절을 맞아 상대에게 '편안하게 잘 지내냐'는 질문이 오히려 편안함을 주지 않으니 아이러니한 일이다. 오랜만에 만난 가족과 어색한 분위기를 풀고자, 또 먼저 간 자의 경험을 공유하고자 던진 말임을 이해하지만, 사전적 의미를 담지 못했기 때문에 발생한 현실이 아닌가 싶다. 실상은 진짜 안부를 묻지 않고 있는 것이다. 명절 안부 인사를 잘 살펴보면, '어떻게 지냈니'보다 '무엇을 이루었니' '무엇을 이룰 것이니'에 초점을 맞춰져 있음을 알 수 있다. 대화가 예열 없이 단박에 본론으로 치고 들어가는 느낌이다. 이를 본래의 의미로 되돌려야 하는 것이 명절 평화를 위한 제1과제다.

## 생애주기별 질문 넘어 '힘들지…너는 요새 어때?'

하물며 우리 삶의 모습과 양태는 모두 다르다. 진학, 취업, 연애, 결혼, 출산, 주택 구입 등 인생에 닥쳐올 문제들이 모두 차례로 안부 인사 소재가 되는 현실이지만, 개개인에 따라서는 몇 개는 빠뜨릴 수도 있고 또 생략할 의지도 있을 것이다. 그런 개인의 맥락은 삭제한 채 생애주기별 해야 할 일들에 대한 틀이 짜여 있으니 안부 인사가 강요 또는 부담으로 작용하는 셈이다. 너무도 해야 할 일의 틀이 명확한 사회의 특징이기도 하다. "저 대학에는 가지 않을 생각입니다" "저 아이 계획이 아직 없습니다" 말하는 순간, 가족 간 대토론이 시작된다. 여기에 "살이 많이 쪘구나"하는 다이어트 등 자기 관리 문제까지 더해지면 명절 분위기는 클라이막스에 이른다. 그렇게 많은 이들이 올 추석 '내 삶을' 대신 걱정해주는 안부 속에 '마상(마음의 상처)'을 입었을 터다.

이는 꼭 명절에 국한된 문제는 아니다. 우리는 일상생활에서 얼마나 진짜 안부를 묻고 있을까. 나 자신도 "그렇다"고 말할 자신이 없다. 상대가 무엇을 하는지, 어떤 것에 관심이 있는지 듣기보다 내 틀에 맞춘 질문을 하기 일쑤다. '시간이 없으니 요건만 간단히'라는 인생 지침에 따라 결국 또 정해진 생애주기 맞춤형 질문을 하기도 한다. 그러는 동안 누군가에게 비수가 꽂히는 질문도 분명했을 것이다. 차라리 휴가는 갔다 왔는지, 취미로 무엇을 하는지, 잠은 잘 자는지 물어보는 게 낫지 않았을까. 그게 정말 '안녕하냐' 묻는 것이었을 텐데 말이다.

다음 설날은 앞으로 겨우 4개월 뒤에 찾아온다. 제대로 된 명절 안부 인사를 위해 연습을 시작하기 촉박한 시간이다. 나부터 다짜고짜 말고 천천히, 감정과 경험을 공유하는 노력을 해야겠다. 이렇게. "일하느라 힘들지" "너는 요새 어때? 나는 너를 응원해." E&C

# 치매예방 위한 '뇌 건강' 생활수칙 5

고령사회를 넘어 2025년 초고령사회로 접어들 것이란 예측이 나오면서

누구나 건강한 노후를 고민하기 시작했다. 그 중에서도 '치매'는 가장 피하고 싶은 질환으로 꼽힌다.

우리나라는 고령화와 더불어 치매환자가 꾸준히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분당서울대병원이 지난 2012년 실시한 치매유병률조사에 따르면 오는 2030년 치매인구는 전체 노인인구 1269만명의 10% 수준인 127만명에 이를 것으로 전망됐으며 2050년에는 노인 1799만명의 15.1% 수준인 271만명을 돌파할 것으로 예측됐다.

따라서 우리는 지금부터라도 경각심을 갖고 꾸준히 뇌 건강에 신경 써야 한다. 뇌 건강은 일상 속 작은 습관만으로도 충분히 관리할 수 있다. 광동한방병원 뇌기능센터 문병하 원장의 도움말로 일상에서 쉽게 실천할 수 있는 뇌 건강관리법에 대해 알아봤다.

## 장에 좋은 식습관 유지하기

'장이 건강해야 온몸이 건강하다'는 말이 있는 것처럼 뇌 건강을 위해서도 장에 좋은 식습관을 유지하는 것이 좋다. 특히 비타민, 무기질, 필수지방산 등이 풍부한 식품들은 뇌세포 성장에 도움이 된다. 현미나 통곡류, 채소와 과일, 견과류, 등푸른 생선 등을 고루 섭취하자. 반면 장에서 흡수장애를 일으켜 뇌에 나쁜 영향을 줄 수 있는 정제된 탄수화물, 특히 밀가루음식은 지나치게 섭취하지 않도록 주의한다.

## 충분한 수면으로 뇌 맑게 하기

누구나 한 번쯤 잠을 못 잔 날이면 머리가 멍한 느낌을 받았을 것이다. 이처럼 수면시간과 질은 뇌 기능에도 영향을 준다. 뇌 건강을 위해서는 평균 6~8시간 정도 수면을 취하는 것이 좋다.

단 수면시간에 너무 집착하지는 말자. 수면시간을 지키려고 억지로 잠을 청하면 오히려 불안해져 더 못 잘 수 있다. 적당한 수면시간도 중요하지만 얼마나 깊게 잘 자는지, 즉 수면의 질도 중요하다. 따라서 숙면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것도 중요하다. TV나 스마트폰 등 수면을 방해하는 빛은 멀리하고 일체의 조명을 차단해 방을 전체적으로 어둡게 하는 것이 좋다.

## 꾸준한 운동으로 뇌에 활력 불어넣기

운동은 뇌 건강을 위해서도 꾸준히 하면 좋다. 특히 필라테스, 크로스핏 등 움직임이 많고 변화가 심한 전신운동은 뇌를 자극하는 데 도움이 된다. 따로 시간을 내기 어렵다면 평소 간단한 스트레칭과 체조만 꾸준히 해도 뇌에 활력을 불어넣을 수 있다.

## 다양한 활동으로 손 부지런히 움직이기

치매예방에서 가장 중요시되는 생활습관은 바로 손을 많이 쓰는 것. 손을 많이 움직이면 기억력발달과 뇌의 노화방지에 도움이 된다. 맨손체조나 손끝박수 등을 꾸준히 하거나 종이접기, 도예, 악기연주 등 손을 활용하는 취미활동을 하는 것이 좋다. 독서, 글쓰기, 외국어학습 등 읽고 쓰는 활동도 뇌를 자극하는 데 무척 유리하다.

## 뇌세포 파괴하는 술·담배는 저 멀리~

술은 뇌세포를 파괴해 치매의 강력한 위험요인으로 꼽힌다. 흡연 역시 혈관을 수축시켜 뇌혈류에 문제를 일으킨다. 특히 음주와 흡연을 지속하면 만 65세 미만에 발병하는 '초로기치매'의 위험도 피할 수 없다. 초로기치매는 노년기치매보다 뇌세포의 손상속도가 빠르며 무엇보다 사회활동이 가장 활발할 때 발병해 가정경제도 직격탄을 입을 수 있다. E&C

# 저주파 자극기, 계속 써도 괜찮을까?

**최근 목이나 어깨, 허리 등에 부착해 사용하는 저주파 자극기가 인기다. 물리치료실이 아니라 가정에서 손쉽게 쓸 수 있도록 작고 가벼울 뿐만 아니라 배터리 충전으로 반나절 넘게 작동한다. 게다가 가격도 저렴하다. SNS를 타고 효과가 좋다는 입소문이 퍼지면서 판매량도 늘고 있다.**

저주파 자극기는 전기근육자극(Electrical Muscle Stimulation, EMS), 경피적전기신경자극(Transcutaneous Electrical Nerve Stimulation, TENS) 기능적전기자극(Functional Electrical Stimulation, FES)이 대표적으로 1000Hz 이하의 약한 전기로 신경이나 신경근을 자극해 효과를 낸다.

사진 1. 이제는 물리치료실이 아니라 가정에서도 휴대용 저주파 자극기를 대중적으로 쓰는 시대가 됐다. (출처: shutterstock)

## 전기자극으로 근육의 수축과 이완 유도

최근 마사지기로 인기를 얻고 있는 저주파 자극기는 대부분 EMS에 기반한 제품이다. EMS는 피부에 부착한 패드로 저주파 전류를 보내 근육 섬유를 활성화하고, 근육의 수축과 이완을 유도한다. 마치 뇌가 근육으로 신호를 전하듯, 기기의 전기 자극이 근육에 직접 신호를 전달한다. 근육의 반복적인 수축과 이완은 근육의 경련을 완화하고 체액의 순환을 촉진해 뭉친 근육을 풀어준다. 지압이나 마사지 역시 혈액과 림프액의 순환을 촉진하고, 통증을 억제하는 물질의 분비를 촉진해 근육을 풀어주는 역할을 한다.

또 마사지를 할 때 압을 조절하듯, EMS는 진동 폭과 주파수, 파형에 따라 근육을 다르게 자극한다. 진동폭이 넓을수록 손으로 마사지를 받는 것처럼 근육을 부드럽게 누른다. 또 파동이 대칭성을 이루는 대칭이상파를 이용하면 마치 여러 군데를 돌아가면서 두들겨주는 느낌을 낸다. EMS를 이용해 사용자가 마사지를 받는 듯한 느낌과 효과를 주는 것. 반면 TENS를 이용한 제품의 주 목적은 통증 조절이다. 2~200Hz의 주파수를 사용해 말초신경을 자극, 뇌로 전달되는 통증 신호를 차단하거나 통증 억제 물질인 엔도르핀의 활성을 증가한다는 이론이 있다. EMS와 달리 근육의 수축과 이완을 유발하지 않는다.

FES는 치료에 목적을 둔 EMS라고 볼 수 있다. 주로 신체에 마비 증상이 나타나는 환자들에게 처방된다. 신경학적 원인으로 근육을 조절하는 데 문제를 가진 환자들이 걷거나 몸을 움직이는 데 있어 연관된 근육을 강화시키는 데 활용한다.

## EMS, 부위 당 하루 3번 이내로만 사용해야

EMS는 한 부위에 오래 동안 사용하면 열감이나 염증반응, 붓는 등의 증상이 나타날 수 있다. 따라서 하루에 20분 정도 3회 이내로 사용하는 것이 좋다.

사진 2. 저주파 자극기는 어디까지나 통증의 완화 정도의 역할을 하므로 질환을 확인하는 것이 중요하다. (출처: shutterstock)

사용을 피해야 하는 사람도 있다. EMS는 전기 자극으로 효과를 내기 때문에 심장 질환자는 가급적 사용하지 않는 것이 좋다. 심장은 전류가 흐르는 장기로 전기 자극이 심장에 영향을 줄 수 있기 때문. 특히 심장 박동기를 삽입한 환자는 박동기에 영향을 줄 수 있기 때문에 금물이다. 임산부도 전류가 복부를 통해 태아에게 전달될 가능성이 있어 사용해서는 안 된다. 또 신경에 문제가 있거나 저리는 등의 증상이 있는 환자는 감각기능이 저하된 상태로 전기 자극으로 인한 증상이 나타나도 인지하지 못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주의해야 한다. 당뇨환자도 말초 감각 신경의 기능이 떨어져 있기 때문에 사용 중 화상이나 피부 손상이 발생할 위험이 높다. 이 때는 강도를 낮춰 사용하는 것도 방법인데, 그만큼 효과는 떨어진다.

근육통을 완화하는 데 있어 EMS도 도움이 되지만 무엇보다 원인을 파악해 개선해 나가는 게 필요하다. 어깨나 목, 허리 통증 등은 대게 자세가 원인이다. 평소 다리를 꼬는 습관은 허리와 골반 통증을 유발할 수 있다. 또 사무직의 경우, 목은 모니터 쪽으로 빠져있고 허리는 뒤로 구부리고 있는 경우가 많아 만성적으로 목과 허리 통증을 호소할 수 있다.

질환이 원인인 경우도 있다. 목과 함께 어깨나 팔, 손으로 통증이 이어진다면 목디스크를 의심해 볼 수 있다. 또 허리와 골반에 통증이 있다면 부인과 질환을 확인해 봐야 한다. 건강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식품부터 기기까지 다양하다. 나에게 맞춰 적절하게 이용하되, 지나친 의존은 유의하자. E&C

– 출처 : KISTI의 과학향기 –

# Culture

## Festival

### 강경젓갈축제

**기 간 : 10월 16일 ~ 20일 장 소 : 강경금강둔치, 옥녀봉, 근대역사문화거리 등**

강경젓갈축제는 문화관광 유망축제로 선정되어 볼거리, 먹을거리가 풍성한 지역문화축제이다. 강경젓갈의 특징은 모든 재료를 원산지에서 직접 가져와 선조로부터 이어받은 전통비법에 현대화된 시설로 정갈하게 제조되어 전국의 어느 젓갈과도 비교될 수 없는 옛 고유의 참맛을 그대로 간직하고 있다는 것이다. 우리나라 대표적인 산업형 축제로 발전한 강경젓갈축제는 단순히 젓갈이 염장식품이라는 개념을 탈피하여 세계속의 젓갈, 발효음식이라는 인식을 확고히 다진 결과, 관광객들의 호응도가 훨씬 높아졌다. 또한 이번 행사에서는 전통과 현대가 어우러진 멋진 공연 관람과 다양한 젓갈을 시식할 수 있다. 남녀노소 누구나 참여 할 수 있는 체험행사와 어디에서도 느낄 수 없는 훈훈한 '인정'과 '덤'문화를 강경젓갈축제에서 맛볼수 있다.

www.ggfestival.net

## Book

### 축적의 길 MADE IN KOREA의 새로운 도전

**『축적의 시간』 두 번째 이야기 : 진단에서 처방으로**

한국산업이 처한 위기의 본질을 '개념설계 역량이 부족하다'라는 한 문장으로 압축해서 제시한 『축적의 시간(2015년)』이 문제의 진단이었다면 이 책은 '개념설계 역량을 확보하기 위해서 어떻게 도전적 시행착오의 경험을 축적해 나갈 것인가'에 관한 대안적 방향을 제시한다.

개념설계는 '존재하지 않던 그 무언가를 그려내는 것, 즉 백지 위에 밑그림을 그리는 일'이다. 글로벌 챔피언 기업들의 핵심적 경쟁력은 바로 제품과 서비스의 새로운 개념을 제시하는 개념설계 역량에서 나온다. 그리고 비즈니스를 새롭게 정의할 수 있는 개념설계 역량은 결국 높은 수익으로 귀결된다. 2016년 애플이 전 세계 스마트폰 시장에서 물량 기준으로 14.5%의 점유율을 기록했지만, 영업이익은 전체의 79.2%를 차지한 것은 바로 이동통신 분야에서 새로운 개념을 제시하였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다. 이제 한국산업이 개념설계 역량을 확보해야 한다는 인식은 널리 퍼졌지만, 여전히 실행의 프레임에 갇혀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축적의 길을 나서는 우리의 첫걸음은 우리를 눈부신 성공으로 이끈 바로 그 실행의 관행과 결별하는 쉽지 않은 일에서 시작된다." 그래서 저자는 선진 기술을 모방하여 추격하는 단계에서 체화된 사고방식과 관행이, 시행착오의 축적을 통해 세상에 없던 제품과 서비스를 정의하고 만들어내는 개념설계 역량의 확보에 어떻게 걸림돌이 되는지를 날카롭게 지적한다. 그리고 5가지 축적의 전략을 소개한다.

**이정동 저 | 지식노마드**

## Exhibition

### 내 이름은 빨강머리 앤

**기 간 : ~ 10월 31일 장 소 : 갤러리아포레**

"이 세상엔 좋아할 것이 이렇게 많다는 게 너무 근사하지 않나요?"

〈내 이름은 빨강머리 앤〉은 출간 이래 100여 년이 넘는 시간 동안 변함없이 전 세계적으로 뜨거운 사랑을 받고 있는 소설〈빨강머리 앤〉(원제 〈Anne of Green Gables〉)을 현대적으로 재해석한 전시이다. 우리 각자의 마음 속에 추억으로 남아있는 '빨강머리 앤'을 회화, 애니메이션, 대형 설치 작품, 음악 및 영상 등을 통해 새롭게 만나볼 수 있다. 이번 전시를 통해 관람객들은 어린 시절의 친구 '앤'을 다시 꺼내어 보며, 긍정적이고 상상력이 풍부한 앤처럼 즐겁고 흥미로운 일상을 만들어갈 힘을 얻을 수 있을 것이다.

www.ann-e.com

## Movie

### 말레피센트 2

강력한 어둠의 요정이자 무어스 숲의 수호자 '말레피센트'가
딸처럼 돌봐온 '오로라'와 필립 왕자의 결혼 약속으로
인간 왕국의 '잉그리스 왕비'와 대립하게 되고
이에 요정과 인간의 연합이 깨지면서 벌어지는
거대한 전쟁을 그린 판타지 블록버스터

**개봉예정**

# KEPCO E&C News

## 2019년도 제7차 이사회 개최

지난 8월 23일, 한국원자력산업회의에서 정일순 신임 감사, 최재석 신임 비상임이사 및 이사 전원이 참석한 가운데 2019년도 제7차 이사회가 개최되었다. 이날 프랑스 지사 설립, 2019년 상반기 결산보고 총 2개 안건이 상정되어 원안가결 및 접수되었다.

## 프랑스 ASSYSTEM사와 워크숍 개최

회사는 프랑스 ASSYSTEM사와 공동으로 사업 및 기술협력 워크숍을 개최하였다. 이번 워크숍은 지난 4월 열렸던 ASSYSTEM사와의 1차 워크숍에 이어 개최된 2차 워크숍으로 진태은 원자력본부장과 ASSYSTEM사의 원자력사업개발총괄책임자 버나드 블랑(Bernard Blanc)을 비롯한 양사 관련자들이 참석했다. 양사는 이번 워크숍에서 신규원전 건설, 가동원전, 원전해체, 소형원자로, 시운전 등의 원자력 부문에서 기술교류를 통하여 향후 공동 기술협력 사항 발굴 및 신규 사업진출 방안을 모색하기로 하였다. 특히, 시운전 분야 교육 및 인적교류 등의 협력을 강화하는 한편, 핀란드 오킬로투 3호기(OL3) 시운전 분야에서 가시적인 성과가 단기간내 나올 수 있도록 협력하기로 하였다. 회사는 이번 워크숍을 통해 사업 및 기술협력에 있어 시너지 창출이 기대되며, 향후 정기적 워크숍을 통해 실질적인 사업 및 기술협력 관계를 유지해 나갈 방침이다.

## 품질경영 및 설계관리절차서 교육실시

2019년도 에너지신사업본부 품질경영 및 설계관리절차서 교육이 실시되었다. 이번 교육은 에너지신사업본부 전 직원을 대상으로 설계 및 기술업무를 일관성 있고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교육은 설계관리절차서 6장 설계관리와 7장 하도급 및 공급자 문서관리에 대해 3차에 걸쳐 진행되었다. 교육에 앞서, 변화운 전무는 에너지신사업본부 특성 반영과 일관성 있는 표준 설계관리절차서가 될 수 있도록 지속적인 개정 필요성을 강조하였다. 회사는 이번 교육을 통해 에너지신사업본부 직원들이 주요 품질 및 계약요건 위배사항 등을 공유함으로서 재발방지 및 예방조치를 통한 설계 결과물 질적 향상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했다.

## 2019년 가동원전계통설계기술용역 수주

회사는 한국수력원자력(주)와 "2019년 가동원전계통설계기술용역" 계약을 체결했다.
2019년 가동원전계통설계기술용역은 연간단위 계속계약으로 전년도보다 상향된 521억원에 수주했다. 특히 2년 연속 500억대 수주는 우리 회사의 축적된 기술을 바탕으로 발주처와 수개월에 걸친 협상을 통해 이루어졌다. 우리 회사는 가동원전의 안전성 및 신뢰성 확보를 위한 ▶기술분석 ▶안전해석 ▶건전성평가 ▶취약설비 개선 ▶인허가지원 ▶발전정지 및 출력감발 시 긴급기술지원 등의 기본역무를 수행한다. 회사는 APR1400 신고리 3,4호기를 포함한 국내 가동중인 26개 원전의 계통, 구조물 및 기기에 대한 기술검토, 설계변경 및 긴급 기술지원 등을 적기에 수행함으로써 설비의 안전성을 확보하고, 고장정지 예방과 이용률 향상을 기대하고 있다.

## '소통의 장' 개최

원자로설계개발단 전 직원들이 참석한 가운데 '소통의 장'이 열렸다. 이번 소통의 장은 회사 현안사항에 대하여 원자로설계개발단 경영진과 직원 간에 진솔한 의견을 나누기 위해 마련되었다. 행사는 회사 매출 및 인력현황에 따른 경영분석과 지방이전 현황 등에 대한 설명 후 직원들의 질의응답 순으로 진행되었다. 김신환 원자로설계개발단장은 "병형상수「兵形象水」와 같이 환경과 시대의 변화를 잘 읽어 변화하는 자세로 우리의 목표를 향해 끊임없이 노력하자"며 전 직원의 이해와 협력을 당부하였다. 원자로설계개발단은 앞으로도 다양한 소통 창구를 마련하여 회사 주요 현안 공유와 활발한 소통문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노력할 계획이다.

## 2019년도 혁신계획 수립 워크숍 개최

회사는 2019년도 혁신계획 수립 워크숍을 개최했다. 워크숍에는 혁신과제 수행자 및 혁신선도그룹 등 직원 30여명이 참석했다. 워크숍은 한국능률협회컨실팅 최진수 강사의 공공기관 혁신의 이해 및 사회적 가치, 혁신성장, 적극행정 등을 주제로 한 강의와 혁신 신규과제 수립을 위한 조별토론 및 결과물 발표 등의 내용으로 진행되었다. 회사는 시민혁신위원회 및 산업부 보고를 통해 혁신계획(안)을 수립하고, 의견수렴 과정 및 보완을 통해 2019년도 혁신계획 및 과제 수립을 완료하였다. 또한 지속적으로 정부의 사회적 가치 및 혁신 방향에 대한 능동적 대응은 물론 우리 회사 특성에 적합한 혁신과제를 발굴해 수행할 방침이다.

## 2019년도 직무입문교육 실시

2019년도 직무입문교육이 3층 교육장에서 진행되었다. 이번 교육은 지난 2018년 9월 입사한 신입사원 등 총 41명을 대상으로 실시되었다.
교육내용은 원자력, 원자로계통설계, 플랜트, 공통분야 등 4개분야의 38개 과정으로 구성되었으며, 담당교과 강사들이 교재개발부터 강의에 이르기까지 실제 업무에서 바로 적용이 가능하도록 실용적인 내용으로 이루어졌다. 직무입문교육은 국가에너지사업을 선도하는 최고의 인재양성을 위한 입문 단계로서 발전소 설계엔지니어링 및 사업관리의 기본지식 습득과 사업 전반에 대한 이해를 높일 수 있는 기회가 되고 있다.

# 내부신고가 필요한 이유

## | 내부신고를 장려하는 이유 |

# 만화로 보는 윤리행동강령

**윤리경영 Key-point**

### 위반행위의 신고와 처리

1. 모든 직원은 이 강령을 위반한 사실을 알게 된 때에는 해당 직원의 소속부서장, 행동강령책임자 또는 국민권익위원회에 신고할 수 있다. 다만, 소속부서장이나 행동강령책임자가 위반행위의 당사자일 경우에는 감사실장에게 신고할 수 있다.
2. 제1항에 따라 신고하는 자는 행동강령 위반행위 신고서에 따라 신고인 및 피신고인의 인적사항과 위반내용을 구체적으로 제시하여야 한다.
3. 소속부서장 또는 행동강령책임자는 제1항에 의하여 신고 된 위반행위를 확인한 후 해당 직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소명자료를 첨부하여 행동강령총괄책임자에게 보고한 후 감사실에 통보하여야 한다.

**내부신고 장려 이유**

**자체해결이 가능하면 굳이 내부신고를 안해도 되지 않을까요?**

내부조치로 해결 가능하더라도 회사 및 사회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거나 잘못된 줄 알면서도 고치려고 하지 않을 경우에는 신고할 의무가 있습니다. 조직의 아픈 부분을 드러낸다기보다는 상처를 살펴서 조기에 치료한다는 적극적인 생각이 필요합니다. 내부신고는 비윤리행위가 우리 내부에 발붙일 수 없도록 차단함으로써 기업의 윤리적 토대를 굳건히 하는 예방효과가 있습니다.

# Inside Outside

## 동호회 동정

### 야구회(코펙파워스)

우리 회사 야구회(코펙파워스)가 OB/YB전 및 한국원자력연구원(KAERI)과 정기교류전을 개최하였다. 김천 어모중학교에서 열린 행사에서 야구회원 20명이 넘는 선수들이 모여 그동안의 갈고 닦은 실력을 발휘했다. 1경기로 열린 OB/YB전은 팽팽한 승부끝에 YB가 1점차로 신승을 거두었으나, OB들의 구력을 확인할 수 있는 좋은 기회였다. 2경기로 열린 KAERI와의 교류전에서는 1점차로 뒤지고 있던 4회말, 김성구 경비대장(사옥관리실)의 역전 만루홈런이 터지고 4명의 투수(조진호, 전양수, 김정헌, 곽상원)들이 6이닝을 잘 막아내며 승리를 거두었다. 경기 후에는 한기와 KAERI 야구선수들간의 친목의 시간을 가졌으며, 다음 정기교류전을 기대하며 행사를 마무리 하였다.

## 사우 애경사

### 결혼

- 원자력)기계배관기술실 김순호 대리 : 8월 31일 부산 센텀시티 W웨딩홀
- 원자력)토건환경기술실 박용호 대리 : 9월 1일 노보텔앰버서더
- 원자력)전기계측기술실 이상원 부장의 자녀 : 9월 21일 쉐라톤 팔래스
- 원자로)사업책임자실 하재홍 처장의 자녀 : 9월 21일 이스턴베니비스

### 부음

- 원자력)전기계측기술실 박희태 부장 모친상 : 7월 24일 국립경찰병원
- 원자력)기계배관기술실 이기석 부장 장인상 : 7월 28일 전남 빛장례식장
- 원자력)전기계측기술실 신경인 부장 장인상 : 8월 2일 서울아산병원
- 경영관리본부 장형식 처장 장모상 : 8월 5일 전북 온누리장례식장
- 신사업)건설사업그룹 백승우 부장 모친상 : 8월 8일 서울아산병원
- 원자로)계측제어설계그룹 김재학 처장 장모상 : 8월 10일 부산 대동병원
- 원자력)전기계측기술실 김태형 부장 장인상 : 8월 10일 김천의료원
- 원자력)전기계측기술실 최은봉 대리 시부상 : 8월 16일 일산병원
- 원자력)사업관리기술실 이준희 부장 장인상 : 9월 6일 산본 원광대병원
- 원자력)기계배관기술실 정만호 부장 부친상 : 9월 7일 분당 서울대병원
- 원자력)기계배관기술실 고성규 부장 모친상 : 9월 8일 보라매병원

**알립니다**

봉사단, 동호회 부서행사 등 전하고 싶은 소식이 있으시면 홍보팀으로 연락주세요.
동우회는 퇴직직원들의 소식입니다. 감사합니다.

## 동우회 동정

### 결혼

장명상 회원 자녀 : 8월 24일 더컨벤션
장영우 회원 자녀 : 9월 7일 울산 동천컨벤션
조직래 자문위원 자녀 : 9월 21일 더블유스퀘어

### 부음

이상섭 회원 장인상 : 8월 3일 김포우리병원
김영민 회원(사업관리기술) 모친상 : 8월 7일 대전 유성한가족병원
이응만 자문위원 본인상 : 8월 8일 강남성모병원
이용호 회원(토목) 모친상 : 8월 11일 일산병원
이원표 회원 모친상 : 8월 13일 동수원병원
이득승 회원 장인상 : 8월 14일 신촌세브란스병원
이영택 자문위원 장인상 : 8월 22일 전주 모악장례문화원
안재열 회원 장모상 : 8월 28일 경남 웅상중앙병원

### 개업

강희진 회원 : 자성당구장(서울 서초구 강남대로 37길 28)

# 2019년 상반기 해외리콜 제품 국내 유통 모니터링 결과

해외에서 안전상 이유로 리콜된 제품이 국내 구매대행 사이트 및 해외직구를 통해 구입 가능한 문제가 지속되고 있어 소비자들의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2019년 상반기, 해외에서 리콜된 100개 제품의 국내 유통·판매 차단**

한국소비자원이 2019년 상반기에 유럽·캐나다·미국 등 해외에서 리콜된 결함·불량제품의 국내 유통여부를 모니터링한 결과, 총 100개 제품*의 유통이 확인되어 판매차단 등의 조치를 취하도록 시정 권고했다.

* '18년 동기 95개 제품 대비 5개 제품(5.3%) 증가

100개 제품 중 국내 수입·유통업자가 판매하지 않거나 유통경로 확인이 어려운 99개 제품은 통신판매중개업자 정례협의체* 등을 통해 판매게시물을 삭제하거나 판매차단 조치했고, 국내 수입·유통업자가 확인되는 잔디깎이 1개 제품은 무상수리 조치가 이뤄졌다.

* 온라인 유통 제품의 안전성 확보를 위해 한국소비자원과 네이버(쇼핑), 11번가(주), 이베이코리아(옥션, 지마켓), 인터파크(쇼핑), 쿠팡 등 5개사가 참여

**시정조치된 100개 제품 중 아동·유아용품이 38.0% 차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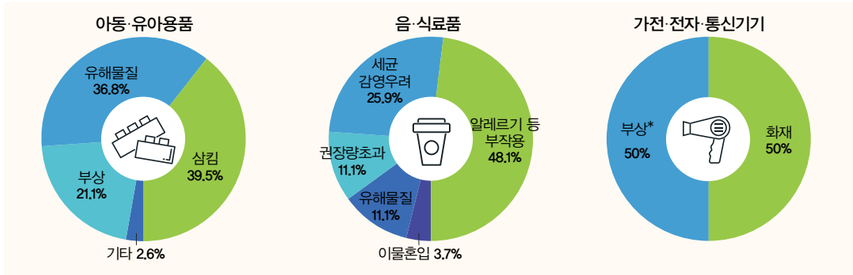
100개 제품의 품목을 확인한 결과, 장난감·아기띠 등의 아동·유아용품이 38개(38.0%)로 가장 많았고, 음·식료품 27개(27.0%), 가전·전자·통신기기 10개(10.0%) 순이었다.

이 중 아동·유아용품은 삼킴 우려(15개, 39.5%)와 유해물질 함유(14개, 36.8%)로 인한 리콜이 많았으며, 음·식료품은 알레르기 등 부작용(13개, 48.1%) 및 세균 감염우려(7개, 25.9%)로 인한 리콜이 다수였다. 특히 음·식료품의 경우 과자·초콜릿 등에 포함된 땅콩·우유·밀과 같은 알레르기 유발물질의 표시가 미흡한 제품들이 많으므로 구입 시 유의해야 한다.

한편 제조국의 정보가 확인되는 53개 제품*을 조사한 결과, 중국에서 생산된 제품이 22개(41.5%)로 가장 많았고, 미국 생산 제품이 11개(20.8%)로 뒤를 이었다.

* 제조국(원산지) 확인이 어려운 47개 제품 제외

〈주요 품목별 리콜사유〉




* 부상 : 제품 파손 등으로 인한 신체의 외적 상해(열상, 찰과상, 감전 등)

**1~3월 판매차단한 제품 51개 중 9.8%가 재유통**

판매차단한 제품의 재유통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금년 상반기에 차단 조치한 제품 중 조치일로부터 3개월이 경과한 51개 제품*의 유통 여부를 모니터링했다.

* 금년 1~3월 판매차단한 제품(4~5월 판매차단한 제품은 재유통 여부 모니터링 중)

모니터링 결과, 5개 제품이 이미 판매차단했던 제품과 동일한 것으로 나타나 해당 판매 사이트에 판매차단을 권고했다. 한국소비자원 앞으로 3개월마다 정기적으로 판매차단 제품의 재유통 여부를 모니터링하는 등 감시할 예정이다. 아울러 해외에서 리콜된 제품을 구매하지 않도록 해외직구나 구매대행 시 소비자위해감시시스템(www.ciss.go.kr)* 또는 열린소비자포털 행복드림(www.consumer.go.kr)**에서 해외제품 리콜정보를 확인할 것을 소비자에게 당부했다.

* 소비자위해감시시스템(www.ciss.go.kr) 홈페이지, '안전이슈 – 위해정보처리속보'
** 행복드림(www.consumer.go.kr) 홈페이지, '상품안전정보 – 위해정보처리속보'

**19년 상반기 시정조치된 해외리콜 제품 중 '아동·유아용품'이 38.0%를 차지**

'19년 상반기 시정조치된 해외리콜 제품은 '아동·유아용품'이 100개 중 38개 (38%)로 가장 많았고, '음·식료품' 27개(27.0%), '가전·전자·통신기기' 10개 (10.0%) 등의 순으로 나타남.

– '18년 상반기에는 '아동·유아용품'이 26개(27.4%)로 가장 많았고, '화장품' 16개 (16.9%), '음·식료품' 15개 (15.8%) 등의 순이었음.

| 18년 상반기 해외리콜 품목 | | 19년 상반기 해외리콜 품목 | |
|---|---|---|---|
| 품 목 | 개 수 | 품 목 | 개 수 |
| 아동·유아용품 | 26(27.4) | 아동·유아용품 | 38(38.0) |
| 화장품 | 16(16.8) | 음·식료품 | 27(27.0) |
| 음·식료품 | 15(15.8) | 가전·전자·통신기기 | 10(10.0) |
| 가전·전자·통신기기 | 13(13.7) | 화장품 | 9(9.0) |
| 생활·자동차용품 | 10(10.5) | 의약·의약외품 | 4(4.0) |
| 스포츠·레저용품 | 5(5.3) | 생활·자동차용품 | 4(4.0) |
| 사무·문구 | 1(1.1) | 스포츠·레저용품 | 4(4.0) |
| 의료·패션관련 상품 | 1(1.1) | 의료·패션관련 상품 | 1(1.0) |
| 기타 | 8(8.4) | 기타 | 3(3.0) |
| 계 | 95(100.0) | 계 | 100(100.0) |

– 출처 : 한국소비자원 –

# 시 작

Writer **김 성 미** 경영지원처 사원

세상의 모든 이들은
끝을 두려워 한다.

'끝'이라는 단어의
단순함의 굴레를 벗어나지 못하고
이내 모든 것을 던져 버리고 만다.

하지만
나는 결코 끝이 두렵지 않다.

끝이라는 절망의 언덕을 넘어야만
시작이라는 희망의 손님과
다시 마주할 수 있을 테니

당당하게 맞서
그 절망의 언덕을 넘고 말 것이다.

벅찬 설렘 가득 안고
희망의 손님과 마주할 그 날을 위해

## 수고에 대한 감사

온전하다는 것은 아무런 문제가 없다는 것이고
살아가는데 있어 편안하고 평화롭다는 것입니다
세상에는 저절로 온전해지는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이 온전함을 위해 누군가의 수고가 있어야 하고
수고를 위한 시간이 필요하고 시간의 흐름은 쌓여
공간이 되고 공간의 순서는 안정을 만들게 됩니다
가정의 평화도, 드넓은 황금 들녘도, 내방의 청결도
일터의 순조로움도, 식당의 맛있는 한끼의 점심도,
밭뚝 풀들의 자연스러움도, 길가에 핀 민들레도...
태어나 한 평생을 살면서 나를 키워 주고 내가 키운
모든 수고와 온전함에 대해 감사를 해야 하는 것이
사람의 마땅한 도리이고 최소한 예의 일 것입니다

글 · 사진 | 김영규 품질안전환경처 부장